



도시, 미디어, 공간

저자
(Authors) 남상욱, 주일우, 김기홍, 황주성

출처
(Source)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 2005.1, 1892-1892(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HCI학회](#)
The HCI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886597>

APA Style 남상욱, 주일우, 김기홍, 황주성 (2005). 도시, 미디어, 공간.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1892-1892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4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도시, 미디어, 공간

Organizer : 남상욱/아트센터 나비

패널리스트 - 주일우 / 아트센터 나비, 이종식 / 서울대학교 정보문화학과

김기홍 / 파리 8대학, 황주성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도시는 우리들이 생활하는 집, 일터, 길, 광장, 공원 등 다양한 공간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역사와 사회를 배우고 어른이 되어 많은 행동을 전개해나가는 삶의 터전이다. 또한 도시는 시간과 공간이 누적되어 형성되며, 하드웨어적으로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담을 수 있는 구체적인 건축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인간의 자유로운 문화 활동에 '맥락'을 제공하는 역할을 병행해왔다.

하지만 정보화로 인해 우리가 공간과 도시를 통해 습득해 왔던 인지체계에는 큰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아주 흡사한 것들이 만들어 내는 가상성 및 가상 체험은 현실과 가상의 분간을 어렵게 하고, 또 둘 사이의 분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이러한 가상적인 것들끼리의 자연스럽고 광범위한 연결은 도시적 맥락과 흡사한 구조를 갖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중적 체계 속에서 거주하게 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공간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미디어와의 관계에 여러가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패널을 통해 과연, 새로운 기술에 의해 발달하는 유비쿼터스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이중적 공간은 실제의 도시 공간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그 공간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토의해 보고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를 사용한 예술작품의 가능성과 의의에 대해 고민해 본다